

미국의 천연가스 대란 ③

2010년 천연가스 공급안정 가능!**LNG 수입 및 가스개발 확보에 시간 필요 ... 43개월 1110억달러 부담**

북미지역에서 2005년 이후 천연가스 시장이 심각한 수급타이트를 경험하고 200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능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LNG 수입 및 캐나다 천연가스 수입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CERA)는 공급량 확보 및 공급시기를 천연가스 시장의 최대 변수로 지적했다.

공급량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천연가스 가격은 4.00달러 이상에 머물러 LNG 수입, 대서양 해분, 알래스카 및 남극유전 개발을 통해 천연가스 자원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이후에야 가격 안정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 가격상승으로 공업용 수요기업들은 플랜트 가동중단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해 가스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제지분야에서는 여러 생산기업들이 천연가스 건조기에서 적외선 건조 장비로 전환하고 있다. 또 ACC의 연례 보고서는 다수의 화학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증대를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nergy Ventures Analysts(EVA)에 따르면, 화학기업들의 2003년 공업용 천연가스 수요는 전체 소비의 13%에 달하는 약 28억입방피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업용 수요는 2000년 8조1600억입방피트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05년까지 약 6조2700억입방피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 이후 가격하락에 따라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ndustrial Energy Consumers of America(IECA)에 따르면, 천연가스 가격상승이 수요기업들에게 전가한 코스트 부담액은 약 1110억달러 이상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요기업들 외에도 전반적인 경기 및 제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41개월 동안 공업기업들의 천연가스 코스트는 총 570억달러, 주택 수요자들은 330억달러, 상업기업들은 21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적 전망으로 볼 때 미국의 에너지정책 실패가 천연가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에너지정책은 천연가스 자원개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천연가스 자원은 대부분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멕시코 Gulf 해안지역은 천연가스 생산량이 격감하는 반면, 록키산맥만 유일하게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2010년 이후에는 알래스카 북극, 캐나다 동부 및 대서양 해분의 천연가스 자원개발로 공급압박이 해소될 전망이다.

<Chemical Journal 2004/02/12>